

대학생들이 서술한 건강개념에 관한 분석

김 애 정* · 최 수 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의 급속한 변화, 발전에 따라 개인의 건강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건강은 개인을 비롯해 사회의 중요한 관심이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환경, 생활양식, 보건의료조직, 생물학적 요인등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 요인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을 갖는다(박미영, 1993).

인간은 규칙적이면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반적인 행위를 취하게 되는데 이 때 그 행위의 맥락은 개인마다 다르고 자신의 건강개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김애경, 1994). 즉 건강개념은 개인이 지각한 건강 인식에 의해 건강행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므로 개인이 지각하는 건강개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신정, 안은숙, 1997)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건강개념은 가변성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건강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이해를 돋기 위해서는 연령, 문화, 사회맥락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Jones, Meleis, 1993).

인류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 온 건강이 개인의 삶의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건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대부분 지식, 태도, 습관에 대한 실태 연구로 개념 자체를 다룬 연구는 희소한 실정이다. 특히 대학생의 건강습관이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시작과 함께 성인기 이후의 건강관리의 근원을 이룬다고 보면 대학생이 지각하는 건강개념에 관한 정의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인간의 생의 주기 가운데 청년기에 속하는 대학생의 건강을 전통적인 건강지표인 사망률이나 이환률로 측정했을 때 건강한 시기에 해당하고,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강하며 자신의 성장과 사회적 관심사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쉽게 범하게 되며 흡연, 음주, 식습관을 포함한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같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이 지각하는 건강개념은 미래의 국민 건강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생각할 수 있고, 현 우리 시대의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건강에 대한 정의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대학생들이 주관적으로

* 여주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 관동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인식하는 건강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교육이나 간호증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들로부터 바람직한 건강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관리 전략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갖고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주관적으로 서술한 건강개념을 분석함으로써 간호현장에서 간호사가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교육이나 간호증재의 효과를 증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대학생들이 바람직한 건강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전략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또한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II. 문헌 고찰

건강이라는 용어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굳세다, 병이 없다는 건(健)과 편안하다, 즐겁다는 강(康)으로 구성되어 '굳세고 병이 없으므로 편안하고 즐겁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다. 서양문화권에서는 고대어인 'hal'에서 유래되었고 그 의미는 'whole'이며, 'health'의 어원인 'hole' 또는 'hall'은 근력 좋음, 완전무결함을 뜻하고 영어의 'heal'은 완전무결하게 만든다는 뜻으로서 신체의 기능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건전한 상태를 의미하여 건강의 의미가 전체성을 뜻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기능이 통합되어 상호조화를 이루는 것이 곧 건강임을 알 수 있다(임난영, 1995)..

W.H.O.는 1948년 건강의 개념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건강과 안녕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의학사전에서는 건강을 "해부학적, 생리학적, 정신·심리적 통합상태, 개인이 가치를 둔 가족, 직업, 지역사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신체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처

리할 수 있는 능력; 안녕(well being)의 느낌으로 특징 지워지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Webster 사전에서는 "개체(organism)나 개체의 부분이 정상적으로 적절하게 생체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상태; 몸과 마음이 건전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Gulzar, 1999).

동양의학에서는 건강을 음과 양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기의 흐름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며 이러한 음양과 기의 흐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질병을 초래한다고 본다(홍원식, 1988). 즉 질병과 건강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는데, 인체의 장부, 경락의 생리활동이 정상적이고 기혈이 조화되고 균형이 잡히면 '음평양비(音平陽秘)'라고 하며, 인체가 그 어떤 발병요인의 작용 하에서 인체의 오장육부와 경락 등 생리활동에 이상이 생기고 기혈의 균형조화 관계가 파괴되면 음양실조(陰陽失調)가 되어 질병이 발생한다(한방간호연구회, 1998).

국내 간호학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건강개념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어 왔는데 양적 연구가 소수 이루어졌으며 질적 연구는 주로 성인, 주부, 노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실시되었고, 이 외에도 문헌을 통한 건강개념 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변영순(1988)은 건강의 의미를 묻는 24문항의 질문지로 자료를 수집한 결과 '몸과 마음이 좋은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가는 상태', '기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 '생활의 변화에 적응하는 상태', '만족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 등으로 나타났고, 궁정도가 낮은 문항은 '병원에 가지 않는 상태, 약을 먹지 않는 상태,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상태' 등이었다. 김애경(1994)은 '가능성, 책임, 자유로움, 행복, 밝음, 힘, 삶, 소중함'이 건강개념으로 나타나 책임, 소중함, 가능성의 3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순옥(1990)은 근거이론 방법론을 사용하여 건강에 대한 실체 개념을 '몸의 평안, 마음의 평안, 몸과 마음의 평안, 심신의 활력, 심신의 조화, 가족간의 화목, 환경과

의 조화, 믿음'의 8개로 범주화하였고, 이를 다시 "힘과 원활함, 조화성, 신명성"의 3개의 실체개념으로 도출하였는데 이러한 '실체개념을 분리된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 통합된 개념으로 보았다. 또한 심문숙(1994)은 '자신감, 활력, 정신적 안정, 균형, 책임, 소중함, 책임감, 행복감, 무병, 자유로움'의 9개 범주로 나타났음을 보고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서술적 연구를 살펴 보면, 김신정과 안은숙(1997)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차 범주화에서는 '질병의 부재, 정상적인 신체상태, 활기침, 활동할 수 있음, 적절한 기능수행, 정상 성장발달, 원만한 대인관계, 사회생활영위, 대처능력, 긍정적 태도, 편안한 마음, 만족감, 자아실현추구, 현실감각, 조화'로 나타났고, 2차 범주화에서는 '신체적 안녕, 힘참, 역할수행능력, 사회적 적응능력, 정서적 안녕, 만족스러운 삶, 조화'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수정(1997)은 '신체적 안녕, 역할수행능력, 정서적 안녕, 힘이 있음, 조화'로 범주화하여 두 논문에서의 여대생과 간호대학생의 공통적인 건강개념은 '신체적 안녕, 정서적 안녕, 역할수행능력, 조화, 힘참(힘이 있음)이 일치되는 범주로서 확인되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영희(1995)는 도시빈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몸의 건강한 개념으로 '거동 가능함, 잘 먹을 수 있음, 일할 수 있음, 아픈 것의 수용과 조절'을 포함하였고, 마음의 건강한 개념으로 '든든함, 자신감, 편안함'을, 영혼의 건강개념으로는 '현세 지향적인 삶 중시, 정상적인 죽음 맞이, 영혼의 자리 매김'을 포함하였다.

이 외에도 고성희(1990)는 처음으로 정신건강 개념을 분석하였는데, '건전한 사고, 올바른 가치판단, 안정된 마음, 행복한 마음, 긍정적 자아개념, 자기발전, 자기통제, 좋은 대인관계, 사회적응, 행복한 생활, 성실한 생활, 삶의 의욕, 안정된 생활'의 13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한국의 전통의학서적을 통하여 건강개념을 분석한 이영자(1992)는 한국 고전을 토대로 전통적 건강개념을 도출한 연구에서 '첫째, 자연환경의 규율에 순응하고 절도 있는 생활을 하는데서 얻어지

는 일종의 규율인 원칙성에 의해 유지되고 둘째, 자연의 변화 리듬과 조화를 이루고 평형을 지향하는 중용의 생활에서 건강이 유지되며 셋째, 인간의 생명은 스스로가 유지하고 성장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자생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넷째, 예방을 중요시하고 다섯째, 천인 합일적 전일성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하였다(정은순, 1994에서 인용).

특히 박정숙(1996)은 우리 나라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질적 연구방법으로 실시된 건강개념 연구를 참고하여 '몸과 마음에 병이 없는 것, 몸과 마음이 평안한 것,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 정신이 건전한 것,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는 것, 마음이 평안한 것, 신체적으로 피로하지 않고 활력이 있는 것'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건강개념 도구를 개발하였다.

Hanna, Jacobs, Guthrie(1995)는 당뇨병 청소년을 대상으로 탐색한 결과 '에너지, 긍정적인 감정, 질병의 부재, 힘, 활동, 적정함, 정신적 능력과 관련성'이 건강개념으로 도출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시대적 흐름과 관련하여 동·서양의 건강개념을 논하면, 고대에는 완전함의 의미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서양에서는 건강을 '안녕(well-being)'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점차 시대의 흐름에 따라 건강개념을 질병이 없는 신체적 상태의 정의를 벗어나 심리적, 사회적인 영역, 역할수행능력으로까지 확대하여 정의되어 갔다. 이에 비해 동양에서는 음양의 조화와 중용 그리고 인간 생명의 자생성을 주요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 이루어진 질적 논문에서 '편안함, 활력, 조화'가 공통적인 개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청년기는 노년이나 주부에 비해 정상적인 신체상태나 역할수행능력, 활력, 활동할 수 있음과 같은 신체적 상태에서의 활기차며 온전함에 대한 개념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앞서 이루어진 연구는 주부, 여대생,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그 결과를 한국인의 보편적인 건강개념으로 확대 정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청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대부분이 여대생을 위주로 연구된 설정이어서 청년기의 건강개념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청년기의 건강개념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성인기 이후의 바람직한 건강행위 이행을 위한 건강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려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건강개념을 탐색하기 위해 개방형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탐색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S 대학, E 대학, K 대학 등 3개 대학에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총 30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9년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였고, 자료수집은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하며 자료수집에 동참할 것에 동의한 세 명의 연구보조원을 채용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들은 채용한 연구보조원이 자료수집에 있어서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 윤리 지침을 전달교육한 후 구두로 설명하게 하여 이를 잘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자료수집에 임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보조원은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지켜야 할 연구의 윤리적 측면으로 대상자에게 연구참여의 철회에 대한 자율성과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였고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뒤 본 연구의 참여에 허락 승낙한 자에 한해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이용된 질문지는 개방형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서 현장에서 연구보조원들이 연구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질문지에 응답하게 한 후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상자가 질문지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시간적 제약을 두지 않았다.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대상자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가 기록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먼저 수집한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적은 후, 동일한 진술과 같은 의미의 진술 그리고 표현이 유사한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으면서 범주화해갔다.

1차 범주화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진술한 그대로의 표현을 가능한 한 그대로 살리도록 노력하였으며, 2차 범주화 과정에서는 1차 범주에서 나온 하위개념들의 속성을 분석한 후 같은 속성끼리 묶어 나갔다. 분석과정은 계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두 연구자간의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범주화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나타난 대학생의 건강개념은 총 239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1차 범주화 과정에서 31개의 범주로, 2차 범주화 과정에서는 9개로 범주화되었다.

VI. 연구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301명으로 연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대상자의 소속대학 분포는 자연대학 100명, 인문대학 100명, 간호대학 101명으로 남자 87명(28.9%), 여자 214명(71.1%)이었으며, 연령은 19세~22세가 42.8%, 23세~26세가 50.2%의 분포를 나타냈다. 종교는 기독교가 39.9%였고 31.9%가 종교가 없었다.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실 수(명)	백분율(%)
소속대학	자연대학	100	33.2
	인문대학	100	33.2
	간호대학	101	33.6
성별	남	87	28.9
	여	214	71.1
연령	19~22세	129	42.8
	23~26세	151	50.2
	27~30세	21	7.0
종교	없음	96	31.9
	불교	33	11.0
	기독교	120	39.9
	천주교	50	16.6
	유교	1	0.3
	기타	1	0.3
이해해주는 사람	있음	265	88.0
	없음	36	12.0
부모의 직업	부	191	63.5
	모	12	4.0
	맞벌이	75	24.9
	부모 모두 없음	23	7.6

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8.0%, 없는 경우가 12.0%였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만 있는 경우가 63.5%, 맞벌이인 경우는 24.9%였다.

2. 건강 개념

대학생들이 서술한 건강개념을 분석한 결과 〈온전함〉, 〈활력〉, 〈조화로움〉, 〈편안함〉, 〈쾌적함〉, 〈건전함〉, 〈행복함〉, 〈할 수 있음〉, 〈원활함〉의 9개 범주로 나타났다(표 2).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온전함〕 : 본 연구에서는 〈온전함〉의 하위개념은 '정상적인 상태', '온전한 상태', '통합적인 상태', '이상이 없는 상태', '무리가 없는 상태', '피로가 없는 상태', '질병이 없는 상태', '아프지 않은 상태', '지장이 없는 상태', '장애가 없는 상태', '제약이 없는 상태', '불편함이 없는 상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온전함〉은 '정상적인 활동을 함께 있어 신체적으로 지장이 없고 불편함이 없이 완전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대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진술된 개념으로 나타나서 청년기의 주요한 건강개념임을 확인하였다.

〈온전함〉은 완전무결하게 만든다는 'whole'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신체 기능의 완전성과 통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헌에서 온전함과 관련한 건강개념이 출현되기 시작한 것은 AD 1000년 이후로서 그 당시의 의미는 안전한 것, 신체의 건전함, 신체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었다(최명애, 이인숙, 1997). 역사적으로 신체적인 온전함은 사회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온전함〉이 건강개념으로 범주화되어 신체가 온전하다는 것은 시대와 연령에 관계없이 영속적이면서도 중요한 속성을 지닌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는 Hanna et

al.(1995)의 '질병의 부재'와 김신정과 안은숙(1997)의 '정상적인 신체상태'의 결과를 포함한 넓은 의미를 갖는 범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활력] : <활력>은 '튼튼한 체력', '활력이 있는 상태', '의욕이 있는 상태'의 3개의 하위개념으로 묶여져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활력>은 '활기찬 체력과 의욕적인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동양문화권에서는 건(建)이 '굳세다'를 의미하는 한편 서양문화권에서의 건강의 어원인 'hole' 또는 'hall'은 '근력 좋음'을 의미하고 있듯이, 본 연구에서도 튼튼함, 체력이 건강의 주요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순옥(1990)의 연구에서의 '활력'과 김애경(1994)의 연구에서의 '힘', 김신정과 안은숙(1997)의 연구에서의 '힘참', 한수정(1997)의 연구에서의 '활력', Hanna et al.(1995)의 '에너지'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미 있게 진술된 활력과 의욕, 에너지는 동양의 '기(氣)'와 서양의 '에너지'의 개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양순옥(1990)에 의하면, '기'는 생명의 호흡 또는 우주를 생동시키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언제나 순환하는 흐름의 원천으로 기의 흐름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며 역동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Rogers에 의하면 에너지장은 모든 우주의 기본단위이며 환경과 인간의 기본요소로서 물질이 에너지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에너지 장인 것을 의미하여 에너지는 종합된 자아의 역동적 본질을 지닌 것(정은순, 1994)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활력>은 동·서양에서 기와 에너지의 개념과 일맥상통한 개념으로서 생명을 유지하며 순환하는 건강의 본질적인 속성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조화로움] : <조화>는 '조화를 이룬 상태', '균형을 이룬 상태'의 2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조화로움>은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균형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신정과 안은숙(1997)의 연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한수정(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것이다. 조화

는 동양의 건강개념인 음양의 조화,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 몸과 마음과의 조화 등으로 주로 동양에서 나타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균형은 서구에서 표현하는 건강개념으로 항상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개념을 동양에서는 조화로 서양에서는 균형과 항상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진술문에서 '조화' 또는 '균형'과 관련한 건강개념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이 전공학습과정을 통해 서양의 이론적 지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려된다.

[편안함] : <편안함>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 '안녕 상태'의 2개의 하위개념들로 구성되어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의 <편안함>은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됨'을 의미한다. 구 영어의 'health'는 안정된 상태를 뜻하고, 동양에서의 건강의 강(康)은 편안함을 뜻하며 마음의 편안함을 건강이라 보아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람은 음양화평지인, 진인, 지인, 성인, 현인이라고 한다(양순옥, 1990, 신경립, 1997). 황제내경에서는 욕심없는 마음과 감정의 변화를 안정케 하여 거처를 편안케 하는 것(한방간호연구회, 1998)을 장수의 요인으로 보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1974년 WHO에서는 '건강을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로 정의(최명애, 이인숙, 1997)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편안함의 하위개념에 안녕 상태가 포함되어 있다. '편안함'은 양순옥(1990)의 몸과 마음의 평안과 유사한 개념으로 나타났으며 김애경(1994)과 심문숙(1994)의 정신적 안정과 유사한 개념이며 김신정과 안은숙(1997)의 정서적 안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나타났다.

[쾌적함] : <쾌적함>은 '즐거운 상태', '좋은 상태', '상쾌한 상태', '맑은 상태', '밝은 상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쾌적함>은 '몸과 마음이 즐겁고 좋으며 정신적으로 맑고 밝아 가쁜하고 깨끗한 상태'를 의미한다. 대상자들은 '몸과 마음이 알맞아 기분이 매우 좋은 상

'태'인 '쾌적(快適)함(동아출판사, 1986)'을 건강개념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변영순(1988)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몸과 마음이 좋은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로 보고한 것과 본 연구에서도 '즐거운 상태'와 '좋은 상태'가 건강의 개념으로 나타나 본래 건강(健康)이라는 단어에서 강(康)이 편안하다 외에 즐겁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임난영, 1995) '쾌적함'은 건강개념의 속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쾌적함>의 하위개념인 '맑고 밝은 상태'는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애경(1994)의 건강 개념인 '밝음'과 유사한 범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맑은 상태'는 정신적으로 맑고 밝아 가쁜하고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의 연구에서 나온 밝음의 의미 있는 진술들인 '맑은 표정, 얼굴이 좋다, 젊음, 믿음직해 보임, 매력적인 것' 등과는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건전함] : <건전함>은 '긍정적인 상태', '건전한 상태'의 2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건전함>을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건전한 정신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성희(1990)가 질적 연구를 통해 정신건강 개념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건전한 사고'와 '올바른 가치판단'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오하일(1990)은 음양오행설에서의 건강을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서 인간의 생명을 건전한 정신과 이것을 잘 보호하거나 또는 그의 운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보존할 수 있는 육체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장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건강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건전함>은 Hanna et al. (1995)의 긍정적인 감정, 김신정과 안은숙(1997)의 긍정적인 태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전함>이 건강개념으로 나타나 바른 정신상태와 마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행복함] : <행복함>은 '행복한 상태', '만족한 상태'의 2개의 하위개념으로 묶여졌다. 본 연구에

서의 <행복함>은 '만족하여 행복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Smith(1982)가 말한 '행복론적 개념'에서의 건강은 일반적인 안녕과 자아실현화 보다 높은 안녕을 성취하려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행복"이라는 개념이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감이 없는 상태(민중서림, 1982)를 의미한다고 볼 때, 주관적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건강개념과 관련된 진술로 나타나 행복감이 건강평가의 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행복함'은 주부를 대상으로 건강개념을 연구한 심문숙(1994)의 '행복감'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수정(1997)의 '만족감', 김신정과 안은숙(1997)의 '만족스러운 삶'과 일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고성희(1990)의 정신건강 개념인 '행복한 마음'과 일치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할 수 있음] : <할 수 있음>은 '하고 싶은 바를 할 수 있는 상태'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상태'의 두 개의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었으며 '자기의 능력이나 가치를 확신하고 스스로 믿는 바가 있음'을 의미하는 자신감과 관련된 건강개념의 속성을 의미한다. 이는 변영순(1988)의 '기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와 고성희(1990)의 '삶의 의욕'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원활함] : <원활함>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체 기능의 순조로움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원활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양순옥(1990)은 원 자료로부터 '몸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활력'의 상위개념으로 '원활함'을 범주화하면서 그 기저를 기(氣)로 보고 그 순환에 의한 건강의 역동적 변화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원활함'을 사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온 '원활함'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범주화 용어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활함'은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먹은 것 잘 싸고, 잘 자는 것" 혹은 "배변에 문제가 없고", "신체기관이 잘 돌아가는 것", "원활한 음식 소화"와 같은 원 자료로부터 도출된

개념으로 신체기능이 순조롭게 잘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고장 없이 잘 나감, 모가 나지 않고 매끄러움”을 의미하는(민중서림,

1982) ‘원활함’의 본래의 뜻을 잘 흡축하고 있는 개념이라 하겠다.

<표 2> 대학생이 서술한 건강개념

의미 있는 진술	개념 속성
·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완전한 상태 /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이 온전한 상태 / 신체적인 것뿐만 아닌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단계 / 자신의 생활에서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나 장애 없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총체적 (육체적, 정신적) 상태	온전한 상태
· 신체,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 / 정신, 신체,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상태 /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극히 정상 /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 / 몸의 여러 기관 및 부분들이 정상인 상태 / 의욕적으로 정신세계 또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컨디션 / 몸과 마음이 양호한 상태 / 총체적으로 양호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
· 신체 통합성이 이루어진 상태 / 신체의 통합성이 유지되는 상태 / 신체 거동이 깨어지지 않는 상태	통합적인 상태
·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태 / 신체, 정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 / 건강은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 / 몸과 마음이 모두 이상이 없는 정상상태 /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이상 없을 뜻을 이를 수 있는 상태 /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태 /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태	이상이 없는 상태
·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 / 살아가는데 무리가 가지 않은 상태 / 몸과 마음이 쾌적하여 일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 상태 / 일을 행함에 신체적 무리가 없는 것 / 하고 싶은 일들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상태 / 자신이 하고자 하는 생활방식에 무리가 없는 상태	무리가 없는 상태
· 쉽게 피로해지는 / 정신적 피로, 육체적 건강 / 어떤 일을 하여도 힘들지 않고 / 질병을 앓지 않고 평소 지낼 때 웬만한 일에 피곤을 느끼지 않는 상태 / 안 피곤한 상태	피로가 없는 상태
· 질병이 없다 / 질환이 없다 / 간단하게 질병이 없는 상태 / 정신적으로 맑고 육체적으로 병이 없을 때 / 신체, 정신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 /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음 / 튼튼한 몸, 질병이 없는 상태 / 질병을 앓고 있지 않은 상태 / 우선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 / 육체적으로 장애나 질병이 없으며 / 질병이 없는 상태 / 질병이 없고 아프지 않는 상태 /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음 / 커다란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 /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 / 몸과 마음이 병들지 않는 것	질병이 없는 상태
· 아프다는 생각이 안들 때 / 아프지 않은 것 / 육체적으로 특별히 아픈 곳이 없고 / 아프지 않고 잘 사는 것 / 몸이 아프지 않고 /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프지 않고 / 안 아프고 / 아프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상태 / 신체, 정신, 사회, 정서적으로 불편함이나 아픈데 없는 것 / 몸으로 인해서 괴로운 상태가 있지 않은 것 / 아픔 없이 육체, 정신적으로 고통이 없는 상태 / 아프지 않은 상태 / 허약하지 않은 것	아프지 않은 상태
·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몸의 상태 / 하고 싶은 일에 지장을 느끼지 않는 신체조건, 정신조건 / 신체적으로 사회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음 /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데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 상태 /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 / 신체적으로 활동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상태	지장이 없는 상태
·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 / 일을 할 때 방해받지 않는 상태 /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는 상태 / 일상활동에 장애가 없음 /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 /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함이 없음	장애가 없는 상태

<표 2> 대학생이 서술한 건강개념 (계속)

의미 있는 진술	개념 속성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 /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태 /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신체상의 제약이 없는 것 / 일상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불편하거나 제약이 없는 상태 / 건강은 어떠한 일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나 제약을 주지 않는지에 의해 결정 /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신체적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 /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신체적인 문제없이 이를 수 있다면 / 하고 싶은 일을 함에 있어서 신체적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의 문제가 없을 때 /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몸의 상태로 인하여 지장 받지 않을 정도의 상태 /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있어 육체로 인한 제약이 없는 것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있어 신체적 요인이 방해하지 않을 때 / 하고픈 일을 위한 수단 /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한 조건 /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태가 되는 것	제약이 없는 상태 온전한 상태
·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 /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상태 / 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지장을 초래하지 말아야 함 / 신체적인 면으로 아프지 않고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때 / 몸과 마음이 모두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고 자신감 있게 잘 해나가는 것 / 규칙적인 생활하고 잘 먹고 잘 용변보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 / 평상시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 없이 / 어떤 일을 하는데 몸의 불편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음 / 일상생활을 할 때 불편이 없는 몸과 마음의 상태 / 살아가는 데 불편이 없는 것 /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 / 불편함 없이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을 정도	불편함이 없는 상태
·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상태 / 아침에 일어나는데 20초만 필요 한 경우 / 팔굽혀 펴기하고 싶을 때 / 하루 6시간의 수면으로 충분할 경우 / 술 잘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을 때 / 공부하느라 며칠 밤을 새도 심상한 몸의 체력 상태 / 체력, 즉 운동해도 벅차지 않은 상태 / 며칠 밤을 새어도 코피를 흘리지 않는 것 / 신체, 정신이 깨끗하고 튼튼한 것 / 정신적, 육체적으로 튼튼한 상태 / 몸과 마음이 튼튼한 것 / 자신이 신체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	체력이 있는 튼튼한 상태 활력
· 생활의 활력과 리듬감이 있으며 / 늘 활력이 넘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상태 / 육체, 정신적으로 의욕이 넘치고 활기차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태 / 삶의 활력소 / 삶의 원동력 /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힘이 있는 상태 / 매사에 의욕이 있고 일을 처리하는데 에너지가 풍부한 상태 / 몸에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	활력이 있는 상태
· 삶의 의욕과 적극성 / 의욕적, 적극적 사고의 원천 /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상태 / 무엇이든지 할 의욕이 있고 그것을 해낼 수 있을 때 / 모든 것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 / 내가 하 고자 하는 목표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며 하루 하루의 생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 / 모든 일에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 / 정서적으로 삶에 의욕이 있는 사람	의욕이 있는 상태
· 육체와 정신이 조화로운 상태 / 육체와 정신의 조화로움 / 총체적인 조화상태 / 아무 질병 없이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 / 신체, 정신적인 조화 상태 / 정신, 신체적인 조화, 최상의 상태 / 정성과 몸의 적당한 조화 / 정신과 몸이 하나된 상태	조화를 이룬 상태 조화로움
·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상태 / 일단 균형이 깨어지면 건강과는 멀어지 게 된다 / 현상유지 / 정신적, 사회적, 물질적인 균형상태	균형을 이룬 상태

<표 2> 대학생이 서술한 건강개념 (계속)

의미 있는 진술	개념	속성
· 심신이 편안한 상태 /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 육체, 정신, 사회적으로 편안한 상태 / 육체적으로 평안할 뿐 아니라 심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일컫는 것 /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 / 정신, 육체적으로 편안함 / 평화로운 상태 / 신체적, 정서적, 지적, 영적, 문화적 조건에 상관없이 평안함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는 것 / 행복하다고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 자신의 의지대로 편안히 살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상태 / 육체, 신체적으로 편안한 상태 / 육체,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이상이 없는 것 / 가장 평안한 상태 / 몸과 마음이 정상적이고 편안한 상태 / 신체적,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편안한 상태 / 신체, 정신적으로 평화를 이룬 상태 / 몸도 편하고 정신도 편하고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는 상태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	편안함
·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 / 육체, 신체적으로 안정된 상태 /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함 없이 안정된 상태 /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함 없이 안정된 상태 / 신체,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 /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 /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 / 심신이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 / 정신적으로도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 / 편안한 상태, 안정된 상태 / 정신적으로는 평안, 안정된 상태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 개인의 최적의 안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 / 영적,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안녕한 상태 / 정신적으로 또한 안녕한 상태 / 신체적, 영 안녕 상태 / 정신적으로 안녕 상태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안녕상태 / well-being		
· 몸과 마음이 즐거운 상태 /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상태 / 유쾌하고 즐거운 기분을 함께 나누는 것 / 신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	즐거운 상태	쾌적함
· 몸과 마음이 좋은 상태 / 건강은 기분이 최대로 좋은 상태 / 생활하는데 기분이 좋은 상태 /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기분이 좋은 상태 / 적당히 기분좋은 상태를 방해하지 않는 신체상 좋은 상태 / 이성적으로 판단할 만큼 몸의 상태가 좋은 것 / 보편적으로 느끼는 '좋은 생각'들		
· 언제나 상쾌함 머리 / 유쾌한 기분 / 늘 상쾌한 기분 / 상쾌한 상태 / 상쾌한 아침	상쾌한 상태	
· 정신적으로 맑게 사는 것 / 육체적, 정신적으로 깨끗하고 맑은 것 / 맑은 정신과 사고를 가지 고 행동하는 것 / 나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맑은 상태	
· 밝고 옳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 밝은 상태	밝은 상태	
·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몸과 마음 / 몸과 마음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을 행하고 있는 것 / 긍정적 사고를 유추 / 정신적으로 긍정적이며 능동적인 상태 / 정신적인 건강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매사를 활기차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 /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상태 / 삶에 대해 긍정적임 / 정신적으로 자기자신과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음	긍정적인 상태	건전함
· 정신적으로 건전한 상태 / 건전한 상태 / 건전한 정신 / 정신적 육체적인 건전함/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긍정적인 상태에서야 육체적 건강도 유의미 / Good mind, good body / sound mind, sound body / 육체, 정신적으로 건전한 상태 / 몸과 마음이 건전한 상태	건전한 상태	
·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 / 행복하여 가뿐한 상태 / 건강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다 / 개인의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행복한 상태	행복함
· 불편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상태(신체적, 경제적으로) / 심리적, 육체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 /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상태	만족한 상태	

<표 2> 대학생이 서술한 건강개념 (계속)

의미 있는 진술	개념	속성
·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 / 몸에 구애 받지 않고 자기 가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 활동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태 / 자기가 원하는 바,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바를 육체적으로 이를 수 있는 상태 / 하고 싶은 바를 이룰 수 있는 상태 /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 내가 하고 싶을 일은 하면서 사는 것	하고 싶은 바를 할 수 있는 상태	할 수 있음
· 하고자 하는 일을 자신의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는 상태 /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 / 육체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상태 / 몸에 아무 이상이 없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상태	
·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먹은 것 잘 싸고, 잘 자는 것 / 배변에 문제가 없고 / 신체기관이 잘 돌아가는 것 / 잘 먹고 잘 자는 것 / 원활한 음식 소화, 힘찬 sex, 숙면	원활한 상태	원활함

이와 같은 결과는 신체기능이 최정점에 달해 있는 청년기에 속한 대학생들에게서 '원활함'이 건강 개념으로 도출되었다는 것은 왕성한 활동과 지적, 정신적 사고가 풍만한 시기인 청년기에 이와 같은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되 건강유지 및 건강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 바로 청년기임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기능의 원활함이 중요한 관심으로 생각되면서 그 결과 대학생들에게서 '원활함'이 건강개념의 한 속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 건강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지도

대학생들이 서술한 건강개념을 분석한 결과, 건강개념 외에도 건강을 필수적인 요소로 인지하는 진술문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진술이 건강개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데 연구자간에 서로 일치된 의견을 보여, 건강개념과 분리하여 별도로 분석하였다(표 3).

대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초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며 일생생활을 영위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이자 삶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심문숙(1994)의 연구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애경(1994)의 연구에서 '소중함'이 건강의 개념으로 범주화되어 나타났음을 보고하였으나 그의 원자료에서 의미 있는 진술문으로 추출된 "꼭 필요함, 귀중한 것, 정신적

<표 3> 건강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지도

의미 있는 진술	개념
· 건강은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 / 삶에 필수적인 요소 /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 / 건강은 필요한 것	필수 요소
· 건강이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초석 / 삶에 영향을 받지 않은 기본적 요소 / 모든 것을 이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 / 생활활동과 영위에서의 기본 / 무엇을 하던지간에 가장 밑바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배경 / 건전한 정신적 활동을 위한 기본 바탕 / 모든 것의 기본	초석
·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 가장 소중한 것 /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 일상생활을 하거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있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 가장 잊어서도 안 되는 것 /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힘이 됨, 물질보다 중요한 것, 건강이 제일, 생활의 기본, 생명과 직결, 삶의 원천”등은 건강개념을 정의하기보다는 건강에 대한 대상자의 인지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즉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건강개념 내용 속에 이러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었으나 건강개념을 정의하는 의미 있는 진술로 보지 않고 건강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았다. 이러한 차이를 제외하면 본 연구에서의 ‘필수요소’, ‘소중함’, ‘초석’은 심문숙(1994)과 김애경(1994)의 ‘소중함’과 일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건강개념의 정의를 탐색함으로써 이들이 인식하는 건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간호현장에서 간호사가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교육이나 간호증재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이들에게서 바람직한 건강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관리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1999년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였으며, 대상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하게 하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한 서술적 연구이다.

자료분석은 대상자가 서술한 내용에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추출한 후 그 개념이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고, 분류된 개념 가운데 같은 속성을 갖는 개념들을 묶는 방식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이는 계속적인 비교분석과 연구자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나타난 범주화 결과는 총 239개의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31개의 개념과 9개의 속성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 서술한 건강개념은 〈온전함〉, 〈활력〉, 〈조화로움〉, 〈편안함〉, 〈쾌적함〉, 〈전전함〉, 〈행복함〉, 〈할 수 있음〉, 〈원활함〉이었다.
2. 대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은 삶의 〈필수요

소〉, 〈초석〉, 〈소중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을 삶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대학생들은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개념으로 건강을 정의하면서 삶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초석이자 필수요소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의 건강교육이 이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청년의 건강상태를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 건강사정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 건강행위, 건강신념 등 건강과 관련한 계속 연구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3.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는 건강개념 분석 연구를 통해 청년기만의 특징적인 건강개념을 규명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고성희 (1990). 한국인의 정신건강개념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신정, 안은숙 (1997). 여대생의 건강개념과 건강행위. 대한간호학회지, 27(2), 264-274.
- 김애경 (1994). 성인의 건강개념과 건강행위에 대한 서술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4(1), 70-84.
- 한방간호연구회 (1998). 대학한방간호. 현문사
- 동아출판사 (1986). 신콘사이스 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 민중서림 (1982). 에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 박미영 (1993). 대학생의 건강증진생활양식과 관련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숙 (1996). 한국문화에 따른 간호정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II. 성인간호학회지, 8(2), 375-393.

- 변영순 (1988). 건강개념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8(2), 189-196.
- 신경립 (1997). 한국간호론 정립을 위한 연구I. 대한간호학회지, 27(1), 141-155
- 심문숙 (1994). 한국인의 건강행위 양상에 대한 서술적 연구. 중앙의학, 59(12), 963-975.
- 양순옥 (1990). 한국인의 건강에 대한 실제 개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하일 (1990). 오상지혈론: 음양오행한방학. 서울: 일선기획.
- 이영희 (1995). 도시빈곤 노인의 건강개념 및 건강행위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7(2), 141-165.
- 임난영 (1995). 「건강과 이해」.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편저. 인간과 건강(121-150).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정은순 (1994). 한방간호의 문제점에 따른 탐색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명애, 이인숙 (1997). 건강증진과 간호실무. 서울: 현문사.
- 한수정 (1997). 간호대학생의 건강개념과 건강행위에 대한 연구. 중앙의학, 62(11), 955-962.
- 홍원식 (1988). 음양론에 입각한 한국인의 건강관.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학술심포지움 보고서.
- Gulzar, L.(1999). Access to Health care. Image : Jounal of Nursing Scholarship, 31 (1), 13-19.
- Hanna K. M., Jacobs P. M., Guthrie, D.(1995). Exploring the concepts of health among adolescents with diabetics using photography.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0(5), 321-327.
- Jones, P. S. & Meleis, A. I.(1993). Health is empowerment. Advance of Nursing Science, 15(3), 1-14.
- Smith, J. A.(1982). The idea of Health : A Philosophical Inquiry, Advance of Nursing Science, 3(3), 43-50.

- Abstract -

Key concept : Health

Analysis of Health Concept Perceived by th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Kim, Ae-Jung** · *Choi, Soo-Jeong***

Health is an important concept within the health component of nursing paradigm. And health concept is a core component to determine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individual's health perception. Health habits during the period of university student will be affecting health behavior of the adult perio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ealth concept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to provide the strategy of health care for the university students.

The method of this research was a descriptive study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subjects were 301 students of university and their age was from 19 to 3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Health concepts perceived by the university students were "wholeness without difficulty", "vitality", "harmony", "comfort", "Good condition and fitnes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condition", "soundness", "happiness", "enabling" "smoothness".
2. Health was perceived by the subjects as an essential and an important component of life.

* Full-time Lecturer, Yeo Joo Institute of Technology

** Part-time Lecturer, College of Nursing department, Kwandong University